

# 트럼프, 판문점 ‘빅뱅서밋’ 수일 내 발표

## “북·미 정상회담 장소 곧 결정” 막판 조율 중

한반도의 명운을 좌우할 역사적 첫 북미 정상회담의 ‘무대’가 곧 확정된다.

작년 내내 일촉즉발의 ‘핵 대치’를 이어 가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세기의 담판’을 갖는다는 점에서 과연 어디서 회담이 이뤄질지에 지구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르면 이달 중 개최될 회담 장소와 날짜를 놓고 미국과 북한의 조율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우리는 지금 회담을 준비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회담 장소와 날짜가 며칠 안으로 발표될 것 같다”고 말했다.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는 판문점이 꼽힌다. 냉전시대의 마지막 유물이자 남북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두 정상이 평화를 위한 비핵화 해법에 합의하는 것만큼 극적인 무대 장치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특히 사업가이자 TV 리얼리티쇼 진행자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으로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 문제를 한반도에 해결하는 이른바 ‘빅뱅’ 접근법을 선호하고 있다. 이 역사적인 ‘평화 이벤트’의 연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소를 찾는 데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는 분석은 판문점 개최설에 더욱 무게를 실는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지난 트위터와 기자회견을 통해 “남·북한 접경 지역인(판문점 내) 평화의 집/자유의 집이 제3국보다 더 대표성을 띠고 중요하며 지속가능한 장소일까”라며 운을 띄운 뒤 “한반도 분단의 현상이기 때문에 일이 잘된다면 제3국에서 개최하는 것보다 엄청난 기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북미정상회담 후보지로 판문점 평화의집과 자유의집을 거론한 데 이어 수일 내로 회담 날짜와 장소가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역대 미국 대통령이 판문점 인근 DMZ 초소를 방문한 모습. 위쪽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1983년 11월 14일 로널드 레이건, 1993년 7월 11일 빌 클린턴, 2002년 2월 20일 조지 W 부시, 2012년 3월 25일 버락 오바마. /연합뉴스

실무적으로도 판문점만한 대안을 찾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호와 보안이라는 측면에서 미국과 북한 양쪽 모두가 이 정도로 만족시킬 장소는 없기 때문이

다. 게다가 전용기 문제로 거리가 먼 제3국으로 이동하기 어려운 김 위원장의 입장을 고려할 때 육로로 쉽게 접근 가능한 판문점은 최적의 회담장이 될 수 있다. 미국 CNN 방송은 1일(현지시간) 북미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판문점 남측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과 달리 이번에는 북측 구역에서 개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 단독주택지에 아파트 건립 어려워진다

## 광주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입법예고

광주시가 무분별한 아파트 건립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수립지침을 만들어 입법예고했다. 단독주택지역을 아파트로 개발하기 전에 대상지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고층아파트 개발을 일부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는 2일 “2030년 광주도시기본계획 및 2030년 광주도시경관계획”에서 제시한 도시 미래상을 실현하고, 친환경 도시, 쾌적한 주거환경, 건축물 디자인 수준향상 등을 도모해 지속가능한 도시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지침안은 우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신청 시에 구역의 정합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중상향 시 대상지 요건, 입지요건 등에 관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 하천, 공원, 폭 20m 이상의 도로의 T자형 교차로에 접하는 계획구역의 건축계획 시 개방감 확보를 위해 양호한 통풍속도를 확보하도록 했다. 창의적인 디자인 향상을 하거나 지역여건상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상향으로 층수를 대폭 높이면서 발생하는 경관 부조화를 방지하기 위해 단독주택이 밀집된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중상향은 일부 제한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건립예정지 반경 200m 이내 주거지역 안의 2층 이하 건축물

이 있는 대지면적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중변경이 불가하다고 못을 박았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참여 및 도시재생정책에 의하여 도시재생 사업을 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 완화할 수 있다.

광역시·산지형 근린공원, 표고 90m 이상의 보존녹지와 연결한 산지, 자동차 전용도로, 영산강·황룡강 등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 지역을 중상향 제한지역으로 설정했다. 자동차 전용도로, 영산강·황룡강 인접지역은 지점 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일반주거지역의 중 변경을 위한 최소 면적은 1만㎡ 이상으로 하며, 단독주택 지역인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가능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할 때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지 않는 기반시설을 상향하는 부지면적의 10%를 순부담하도록 하고, 지하 및 옥내주차장 비율을 70% 이상으로 계획해 지상을 공공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등 지구단위계획의 공적 기능을 강화했다.

이 지침의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0일(수)까지 광주시청에 지상을 제출하면 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북한 작품 전시 추진

전남도는 성공적인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남북 화해 무드를 반영해 2018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에 북한 작품 전시를 추진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전남도와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사무국은 2일 전남문화관광재단에서 관광문화특별보좌관, 비엔날레 운영위원, 총감독, 큐레이터 등 행사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준비사업 보고회’를 열었다.

보고회에서는 행사 기간 동안 남도한바퀴 특별운영, 관광지 연계 수목비엔날레 여행상품 공모, 수해여행단 홍보 유치 등도 차원의 실질적 관광상품 연계 운영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한국 수목 해외 순회 전시회 개최, 도정갤러리 운영, 도립국악단 토요공연 무료 관람, 북한 작품 전시 등 수목비엔날레의 홍보와 관람객 유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비엔날레 개막 120여 일을 남겨놓고 사무국은 이날 보고회를 시작으로 전시관별 작품 배치 설계와 국제제지전시, 국내외학술대회, 교육·체험·이벤트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목포 갯바위문화타운 일원의 3개 전시관은 ‘현대수목’, 진도 운림산방 일원의 3개 전시관은 ‘전통수목’을 콘셉트로 수목 작품을 전시한다.

전남도지사 권한대행 이재영 행정부지사는 “국제행사로서 수목비엔날레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문화 예술을 널리 알리는 한편 제2·3회 비엔날레 개최까지 생각해 소중히 키워나가길 바란다”며 “올해는 전라도가 태어난 지 천년을 맞는 ‘전라도 방문의 해’이므로 수목비엔날레가 천년을 함께 비추는 행사가 되도록 힘쓰자”고 당부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전라도 정도 천년’ 호남권 국립박물관서 특별전

## 광주시·전남도·전북도 업무협약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아 호남권에 있는 국립박물관이 가을에 잇따라 특별전을 연다.

광주시와 전남도, 전북도는 전라도 천년의 정체성과 위상 강화를 위해 호남권에 위치한 국립광주박물관, 국립전주박물관, 국립나주박물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역의 다양한 문화유산을 가장 많이 보유한 호남권의 국립박물관이 전라도 천년 기념사업에 적극 동참해 전라도의 역사와 문화를 살펴보는 다양한 기념전시 및 학술행사 등을 열기 위해 이뤄졌다.

국립광주박물관은 전라도 공동체 형성 과정과 전라도 역사 인물을 다루는 특별전 ‘전라도 천년을 지켜온 사람들, 악무호남

시무국가’를 10월 22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개최한다. 12월 5일부터 이틀간은 전북사학회, 호남사학회와 함께 전라도 정체성을 살피는 학술대회를 연다.

국립나주박물관은 전라도 국보와 보물 등 문화재 명품을 모아 소개하는 ‘전라명품전’을 10월15일 개막한다. 이 전시는 내년 1월 13일 종료한다. 이 가운데 ‘전라도 명사’를 주제로 윤두서 자화상과 하서집 등이 전시되고, ‘전라도 명품’을 주제로는 보물 청자 조각 쌍사자도침 등이 전시될 예정이다. 또 근현대 전라도의 발전상을 볼 수 있는 ‘사진 속 전라도 여행’이라는 주제의 사진전도 열린다.

국립전주박물관은 고려청자 생산지였던 전라도를 조명하는 전시 ‘고려청자의 정점을 만나다-부안청자·강진청자’를 9월 22일부터 12월 2일까지 선보인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담양대나무축제·곡성세계장미축제·완도수목원

## 전남도 ‘온가족 추천 관광지’ 선정

전남도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효&사랑여행’을 테마로 정해 담양대나무축제, 곡성세계장미축제, 완도수목원 3곳을 추천 관광지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담양 대나무축제는 ‘대숲향기 천년을 품다’를 주제로 7일까지 6일간 죽녹원, 관방제일 일원에서 열린다.

대나무축제는 죽녹원의 대나무 기운과 영산강 시원의 관광자원 기운이 크게 통하는 의미를 부여해 운(運), 수(水), 대(大), 통(通)을 주제로 전시, 체험,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펼쳐진다.

곡성세계장미축제는 ‘두 개의 사랑, 수억 만 송이 세계명품 장미향 속으로’를 주제로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섬진강 기차마을 1004 장미공원에서 치러진다.

완도수목원은 꽃길을 걸으며 여행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시계절 오감만족 휴식공간으로 수목의 향연을 관람할 수 있다. 국토 최서남단에 위치해 1년 내내 푸름을 자랑하는 난대림과 다도해 경관이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조건을 간직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

**임야삽니다!**  
문중산/지분물건 환영. 010-3605-50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혈당조절**

식후 혈당 상승억제!!!

식후혈당상승억제에 도움을 줄수 있음    고지방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된 건강기능식품

식후 2개월씩... 하루 2번으로 식후 혈당상승 억제 OK!!!

삼성제약헬스케어(주) 당디펜스(D.Defense)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1일 4캡슐로 혈당조절이 충분합니다.

**당 디펜스** 이련분들께 권해드립니다

- ▶ 혈당조절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
- ▶ 식후 혈당 상승이 걱정되시는 분
- ▶ 평상시 당수치가 높아 혈당조절이 잘 안되시는 분
- ▶ 혈당을 조절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싶으신 분
- ▶ 생활습관이 불규칙하신 분

010-3598-7080

**풋살구장 매매(급매)**

시청에서 9분, 전남대에서 14분!!

상황중 즉시이용 가능(최근완공)

풋살구장4면+사무실+손님휴게실+사위장+화장실

토지 약1600평(구장 1천평, 주차장 600평)  
토지 임대(매매안함)  
(CCTV 등 시설 및 관련 물품포함)

◆ 시세가 3억 3천 ◆  
매매가 2억 6천 5백

구장운영자 010-6603-0680

**펜션·가든 부지매매**

- ▶ 고창군 고수면 문수로 171
- ▶ 대지 및 전답 4,000㎡(전평 정남향)
- ▶ 2차선 도로, 계곡 200m 접해 있음
- ▶ 부속건물 / 한옥 / 수영장 / 방갈로
- ▶ 장성 편백숲 5분거리
- ▶ 문수사 단풍숲 2분거리

010-3768-0615    010-3799-3830    주인 직매